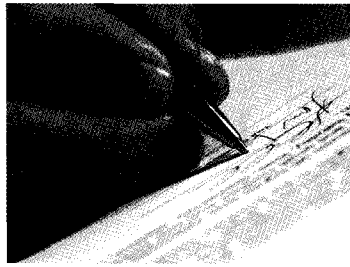


바젤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 선언문 관련 비공식협의 결과



6.13(금) 인도네시아 대표부에서 바젤협약 당사국총회(6.23-27, 인도네시아 발리) 고위급 선언문 작성을 위한 비공식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선언문 협상 일정

- 인도네시아는 총회 개최 전에 제네바에서 고위급 선언문안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으나, 벨기에, 스리랑카,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간적 한계 등으로 제네바에서 협상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함
- 벨기에는 금일 발리회의에 대한 최종 EU 27개국 조정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빨라도 6.16(월)에야 비로소 공동입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
- 스위스는 각국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의장안을 만들고 이를 발리에서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칠레는 의장안을 6.22(일) 지역회의에서 논의한다면 선언문 안 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제안

- 스위스 및 칠레 제안에 따라 의장국은 6.17(화)까지 각국이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국의 입장이 첨부된 의장안을 작성, 6.18에 회원국에 통보하고 6.22 지역회의에서 의장안을 사전 논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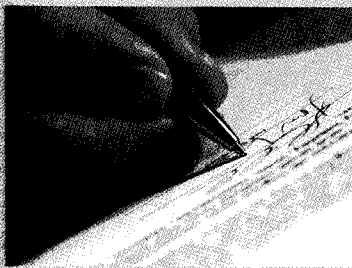
나. 선언문의 명칭과 전문

- 선언문 명칭과 관련 인도네시아는 이미 많은 발리 선언문이 있다는 점, 내용이 기존의 공약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commitment라고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캐나다와 칠레는 보다 완화된 의미의 declaration으로 할 것을 주장함

- 스위스는 (1)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관리와 인간 건강·환경 보호의 상호의존성 (2) 폐기물발생 및 관리로부터 환경, 인간건강 및 생활 보호를 바젤협약의 핵심사항으로 인정 (3) 협약목적에 대한 공약 강화 및 review process를 포함한 협약의 새로운 모멘텀 기여 등을 포함한 전문을 추가할 것을 제한함
- 본문내용과의 중복성(노르웨이), 생활은 협약의 목적이 아님(캐나다), review process는 개정금지 협상재개 등의 위험초래(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지적이 있었고, 일부 단어 수정 후 전체 괄호처리기로 함

다. 본문

- “바젤협약의 효과적 이행이 밀레니엄 선언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문구(para 2)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의 내용을 “상세히 적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캐나다, 한국 등 대부분은 MDG만을 언급하고 “폐기물 예방 및 저감 등을 통하여 빈곤 퇴치, 건강 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주장함
- 한국측은 MDG외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가 있는 지 문의한 바, 인도네시아는 UNCTAD 등에서 합의된 목표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한국측은 환경관련성이 적은 UNCTAD 목표와 불명확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
- 이에 칠레는 MDG의 공식명인 “Development goals contained in the Millenium Declaration”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대다수가 지지
-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관리상 도전과 폐기물관리의 경제적 기회(para 4)와 관련 (1)폐기물관리의 경제적 잠재력 강조(일본, 스위스) (2)폐기물관리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3R(reduce, reuse, recycle)의 경제적 잠재력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관리 강조(멕시코) (3)경제적 기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인한 인간건강에 대한 도전과 폐기물의 국경이동통제의 중요성 강조(브라질) (4)동향삭제(노르웨이) 등 의견이 표출됨
- 의장은 멕시코와 브라질 제안이 부정적/공



정적 접근 또는 경제적 잠재력/건강에 대한 도전의 관점에서 모든 제안을 포괄할 수 있지만, 일본, 스위스의 제안을 포함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지지가 가능한 멕시코안을 바탕으로 의장안을 작성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브라질이 강하게 반대

- 이에 한국측은 멕시코안을 기본안으로 하되, 브라질 등의 안을 alternative에 포함하여 논의하자고 언급하여 대다수가 지지

- “건강과 폐기물관리를 개발전략의 주축으로 삼자”는 문구(para 5)와 관련, 칠레 등 많은 국가가 동 문구가 환경장관이 공약할 수 없는 수준이며, 너무 강하다는데 공감
 - 국제적, 지역적, 기관간 협력촉진(para 6)과 관련, UNEP 등 기관을 열거할 것인지 찬성(칠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등)과 반대(일본, 캐나다 등) 의견이 대립
 - “국제적, 지역적 partnet들이 바젤협약의 이행을 지지하고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문구(para 7)와 관련, 칠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 활동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민간 파트너십을 문구에 포함하자고 제안함
 - 고위급 합의사항(para 8)과 관련, 일본은 (1)유해폐기물 수입통제는 불법적(illegal)인데 한정하고 unwanted import는 삭제 (2)폐기물처리를 위한 최신�기술(state of the art)의 이전을 위한 투자증진관련 문구에서 최신�기술을 적절한 기술로 대체 (3) 국가 보건당국이 2010년까지 세계보건회의에 건전한 폐기물관리전략을 채택하는 결의안을 권한다는 문구 수정 등을 제안함
- 브라질은 (2)와 관련 최신�기술 문구를 유지할 것을 언급

중국 내 수출업체 REACH 대응에 비상
중국 내 수출업체들이 REACH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사전등록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해당 법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료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섬유, 기계, 전자제품 분야 수출업체들의 REACH 대응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따르면, “REACH가 화학물질 수출에 100억 달러의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섬유, 완구류, 기계류의 수출에 약 1,000억 달러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소규모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은 EU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REACH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수출업체들은 대응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 복잡한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 내 석유화학 업체인 Sinopec의 관계자는 “REACH 대응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소모적인 작업이며, 판매 기업들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가장 큰 화학물질 수출업체 중 하나인 이 기업은 ECHA에 등록해야 하는 물질 수가 최대 1,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EU 27개국에 적용되는 REACH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친환경 경영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Starbucks)가 2010년까지 매장내 에너지 소비의 25% 감축, 매장 운영시 필요한 에너지의 5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 2010년까지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원칙에 따라 건설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업 책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건물 신축시

에너지 사용량에 중점을 두고 해외 각국에 4가지 형태의 시범매장을 건설하되, 물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평균적으로 스타벅스는 전세계 43개국 15,011개의 매장에서 1제곱피트당 25갤론 물과 6.78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와 공동으로 빌딩을 인증하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소매점 프로그램과 LEED 포드폴리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전체 포드폴리오를 통해 LEED 기준에 맞게 건물의 신축 방향을 친환경적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스타벅스는 2010년까지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머그잔 사용을 현 수준보다 10배 이상 증가시키고 미국 내 에너지 감축 방법을 확립하고자 전세계 대표적 스타벅스 매장 19군데에 대해 에너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워싱턴주에 위치한 스타벅스 제조공장에 천연 가스 소비 감축을 위한 배출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외부 날씨에 따라 매장 내 온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2007년 커피 구입량의 60%를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인 ‘CAFE Practice(Coffee and Farmer Equity Practice)’를 통해 구매했고 사용된 커피 찌꺼기를 토양비료로 사용하는 Grounds for Your Garde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 LEED

그린빌딩위원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자원을 절약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환경 및 에너지를 고려하여 설계된 건물에 부여하는 인증으로서, 신축건수 대비 인증건수가 10%정도 밖에 안되어 인증획득이 까다로운 프로그램이다.

※ CAFE Practice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고산지대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 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피 농장에 대해 우선판매권을 부여하고 원두 구입 가격도 10%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커피 농가와 스타벅스가 상생하는 프로그램이다.